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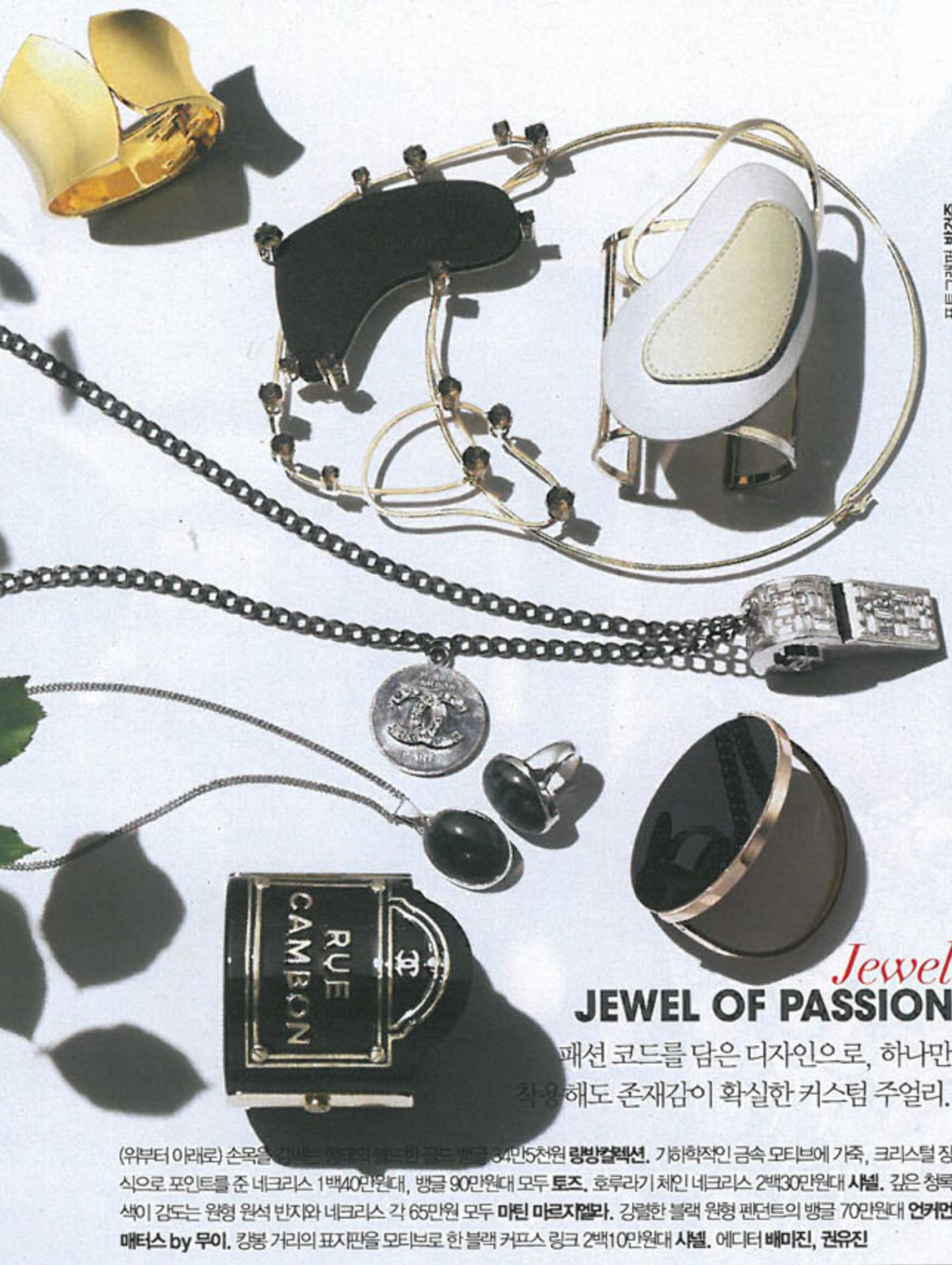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5
vol.130



TOD'S
MADE IN ITALY



포토그래퍼 박건주

Jewel JEWEL OF PASSION

패션 코드를 담은 디자인으로, 하나만 착용해도 존재감이 확실한 커스텀 주얼리.

(위부터 아래로) 손목줄, 브레이슬릿, 목걸이, 귀걸이, 손가락가락, 34인치의원 링방형클러션, 기하학적인 금속 모티브에 가죽, 크리스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네크리스 1백40만원대, 방글 90만원대 모두 토즈, 호루라기 체인 네크리스 2백30만원대 사넬, 깊은 청록 색이 감도는 원형 원석 반지와 네크리스 각 65만원 모두 마린 마르자칼라, 강렬한 블랙 원형 펜던트의 방글 70만원대 안커먼 매트리스 by 우이, 강봉 가리의 표지판을 모티브로 한 블랙 커프스 링크 2백10만원대 사넬,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Fashion WOMEN IN RED

강렬하고 섹시한 이미지의 대명사 레드 컬러가 돌아왔다. 세계적인 컬러 전문 연구소 팬톤에서도 2015 F/W 트렌드 컬러로 탁한 붉은색인 '마르살라'를 꼽을 정도로 레드의 인기가 대단하다. 특히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게 레드를 사용한 컬렉션은 단연 구찌다. 비대칭 러플 장식을 더한 원피스부터 지그재그 패턴의 퍼코트, 마르살라 컬러를 적극 활용한 더블 코트까지 다채로운 레드의 향연을 선보였다. 여기에 마르니, 디올, 돌체앤가바나, 펜디까지 레드와 사랑에 빠진 디자이너들의 의상이 런웨이에 줄줄이 이어졌다. 사실 레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컬러는 아니다. 워낙 강렬하고 눈에 띄어 자칫 잘못 입으면 과해 보일 수 있기 때문. 그렇다면 스타일리시하게 레드 패션을 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 블랙 컬러와의 매치다. 블랙은 레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로 레드를 보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준다. 블랙 팬츠와 레드 컬러의 실크 블라우스를 스타일링한 에르메스의 컬렉션이 좋은 예가 되어줄 것. 두 번째는 액세서리의 궁합이다. 강렬하면서도 유혹적인 레드 원피스를 선택하면 단연 마르니와 페라가모의 컬렉션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모두 벨트를 착용해 허리선을 살리는 동시에 온통 레드 일색인 드레스의 분위기를 중화했다. 이때 액세서리는 브라운, 블랙, 네이비처럼 톤 다운된 컬러를 선택해야 한다. '화려하다', '아하다', '과하다' 등 레드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심시리 도전하지 못했다면 이들이라면 소극적인 스타일링에서 벗어나 패셔너블한 레드 패션을 즐겨볼 때다. 에디터 김지혜



에르메스

돌체앤가바나

마르니

페라가모

구찌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 참신함과 희소성을 내세워 다양하게 오감을 사로잡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주류업계가 파하는 변신의 노력이 눈물겹도록 다채롭다.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나 상품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참신함', '희소성' 같은 단어를 붙일 만한 특색을 내세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여념이 없다. 이트 칼라베이션은 그런 시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싱글 몰트 위스키 브랜드 맥달란은 김병호 작가와 '관계를 주제로 한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백향나무, 적동 도금, 네오도움 자석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Twelve Inter-faces', 그리고 영국 소설가 존 윈담의 작품에 등장하는 식물 과수 이름을 차용한 'Black Trifid'. 또 다른 싱글 몰트 위스키 브랜드 발베니는 전세계 1백28명만 생산한 발베니 50년으로 최상의 품질과 희소성을 부각했다.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에서 한 달간 일반에 공개하는 이 특별한 위스키는 캐스크 4567과 캐스크 4570인데, 둘 다 1963년 같은 날 같은 증류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오크 통에 담겨 50년간 숙성된 원액으로 만들었다고, 판매가는 발베니 50년 2병 한 세트에 1억원. 조니 워커에서는 전설적인 마스터 블렌더를 암살해 고객의 취향에 따른 맞춤형 위스키 제작 서비스인 '시그니처 블렌드 (Signature Blend)'를 선보였다. '나만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비스포크 서비스가 프리미엄 위스키의 세계에도 도입된 셈이다. '조니워커 블루 레이블'의 창시자인 짐 베버리가 서울 조니워커 하우스에서 고객과 마주 앉아 취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시음해가면서 '1인'을 위한 위스키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손수 제공하기도 했다. 돌페리농은 섬세한 피노 누아 품종의 매력에 한껏 살린 '로제 빈티지 2004'를 내놓았다. 피노 누아를 중심으로 한 전혀 없는 배합을 시도했지만 와인 전체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균형을 살리는 까다로운 작업의 소신이다. 또 여성을 위한 스피릿 드링크리는 차별성을 내세운 '에클라 바이 임페리얼(Eclat by Imperial)'은 임페리얼 브랜드의 파격적인 변신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성의 과일이라 불리는 석류 향을 가미한 위스키로 알코올 도수를 31도로 낮췄는데, 향수병 같은 분위기의 패키징도 돋보인다. 에디터 고성연



맥달란

에클라 바이 임페리얼

돌페리농

발베니

THE BALVENIE

50



포토그래퍼 박건주

Beauty COLOR ME!

요즘 SNS에 올라오는 여자들의 포스팅을 유심히 살펴보면 카피지를 우아하게 잡은 손에도, 누구나 탐낼 만한 잇백을 든 손에도 예쁜 네일 아트가 함께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그들처럼 여름 내내 유행한 핑크 네일 컬러나 블루, 화이트 컬러의 네일 에나멜을 지우고 어느새 포근하고 부드러운 니트에 어울리는 깊고 풍부한 가을 색채의 네일 컬러로 체인지했다는 것. 당장도 트렌드에 뒤처질 수 없지 않은가? 유행을 어떤 컬러의 네일을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면, 여기부터 럭셔리 하우스에서 신제품으로 내놓은 네일 컬러에 주목하도록.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매 시즌 다양한 네일 컬렉션을 선보이는 맥은 이번 시즌 크리미한 컬러를 메인으로 출시했는데 그중 **백 스튜디오 네일 라커 비포 단**은 옅고도 은은한 진주빛 핑클 함유한 카키 컬러의 네일 에나멜. 그레이 톤이 섞인 크리미한 카키 컬러로 부담스럽지 않고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다(10ml 1만8천원). **입생로랑 라 라고 구뮌트 270호**는 발랄한 핑크가 아닌 코랄빛이 섞인 톤 다운된 인디 핑크 컬러로 내추럴하면서 여성스럽다. 알고 가버린 핑클 코팅 효과로 빠르게 건조되고 손톱의 수분을 유지해준다(10ml 3만3천원).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네일 라커 발벳 컬렉션 01호 암 캔디**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딥 퍼플 컬러로, 무광택 발벳 느낌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톱 코트로 광택을 내지 않고 매트한 느낌 그대로 발라야 예쁜 컬러이니 참고하도록(9ml 2만6천원). 가을 숲속의 빛과 어둠, 자연의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샤넬 르 베르니 679호 베르 올스카**는 블랙에 가까운 딥 그린 컬러로 초목의 잎사귀에 반사되는 햇빛을 연상케 한다. 차분하면서도 강렬하고 어두운 컬러라 솔리드로 깔끔하게 발랐을 때 더욱 세련되고 예쁘다(13ml 3만3천원). **버버리 네일 폴리시 아이보닉 105호 링크** 버버리 트랜치코트를 연상케 하는 웨이비지 컬러. 영국의 날씨와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 향신료 프루비타민 B, 미르 추출물 등을 함유해 약한 손톱을 강화하고 수분 공급을 도와 손톱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한다(8ml 3만원). **디올 베르니 892호 비 다움**은 9월에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디올 아र्ट 리프팅의 컬러와 매칭해 바를 수 있도록 고안한 매혹적인 자칫빛 에나멜이다. 광채가 섬세한 핑클 함유해 어느 각도에서든 반짝임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 원 컬러는 물론 딥 프라퍼로 발라도 세련되고 선명한 컬러가 돋보인다(10ml 3만3천원). 에디터 권유진

Exhibition <우고 론디노네>展

도시심학관에서 원초적인 자연을 환기해주는, 그러면서 조형이 주는 감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주목할 만한 전사가 서울을 찾아왔다. 스위스 출신으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개인전이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www.kukjegallery.com) 3관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열린다.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우르스 피셔와 함께 스위스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되기도 한 론디노네는 오래된 올리브나무의 몸을 떠 알루미늄으로 주조하는 등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특이하고 개성적인 인물로 성(性), 관(觀), 자(在), 그리고 일상의 변화하는 분위기를 중점적인 작품 주제로 다루었다. 이번 국제갤러리 전시에서는 5개로 이뤄진 청석 조각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가까운 원재료가 거칠면서도 은근히 인간의 형상을 드러내는 묘미를 선사한다. 인간과 석상이 연결돼 있다는 의미를 담아 감상자의 마음에 '고요한 파동'을 선사하는 흥미로운 연작이다. 작가 자신이 거주하는 뉴욕 근교에서 재료를 가져다 썼다고 한다. "제 작품과 함께한 시간이 예술과 본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예술이란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시간의 자연스러운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는 론디노네의 동 형상은 작가의 말처럼 직접 마주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문의 02-735-8449 에디터 고성연

이미지 자료: 국제갤러리